

## 1.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부할 분량이 너무 많은 것 뿐이다.

### → 분량줄이기

- (1) 수험서는 이론 요약집 1권, 문제집 1권만 정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강의자료나 보지 않는 책은 중간에 버립니다.
- (2) 「체계 - 목차 - 논점」으로 분량을 줄입니다(논점 80 참조)
- (3) 기출 1000제와 정답이 방긋 웃는 지문으로 마무리 합니다.
- (4) 줄을 잘 긋는 것만으로도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을 그을 때는 자를 대고 연필로 예쁘게 그으시고, 기본서에 메모를 하시거나 다른 책의 내용을 첨부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분량을 늘리는 것이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 2.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어가 어려운 것이다.

### → 이해+암기(암기먼저 → 이해(수업) → 복습(문제))

- (1) 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의미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영어단어 외우듯 암기가 우선입니다.
- (2) 민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는 전부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법령집을 참조하시고 수업 시간에는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3)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지어 이기 때문에 끊어서, 풀어서 읽으면 대부분 무슨 의미인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 (4)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는 익숙할 때까지 쉬운 말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예 법률행위 → 매매계약, 의사표시 → 매도(청약)+매수(승낙)

- (5) 법률용어가 익숙할 때까지 일상 생활에서도 법률용어를 사용하세요. 어차피 실무에 가시면 계속 쓸 용어이니 미리 적응한시기 바랍니다.

### 3. 민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이 어려운 것이다

#### → 문제와 시험을 통한 이해와 복습

(1) 민법은 다른 과목과 달리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용이 다 이해가 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2) 민법은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난 주 배운 내용이 복습이 되어 있어서 이번 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복습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릅니다. 복습은 **문제**로 합니다.

(4) 문제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최근에 답으로 출제된 내용은 다시 출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이 되지 않았던 지문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민법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모두 보기 때문에 좋은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지문이 우리 시험에 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최근에 아주 많습니다.

→ 그래서 「기출 1000제」와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지문」을 준비하였습니다.

(5)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모의고사)**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아야 내가 어디를 알고 있고 어디를 모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면 시험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6) 이해는 수업시간에 저와 함께 합니다. 따라서 수업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7) 우리는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암기가 처음에는 잘 안될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옛날 생각하시면 더 안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좌절하시거나 누구를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반복 또 반복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분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 만큼 암기할 양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 1. 2021년 민법시험 예측

2021년 민법 시험은 다소 쉽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다만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공부하는 것이 쉽게 출제가 되든, 어렵게 출제가 되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맞는 자세라고 본다.

아무튼 2021년 제32회 시험에서 민법은 31회 시험보다는 쉽게 출제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최근 시험 경향 통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난이도	제28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제32회
민법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다소 쉬울 것으로 예상
개론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주의할 점은 민법이나 개론이 전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절대적으로 쉽다는 의미는 아님, 우리 시험은 횡수를 거듭하면서 문제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음.

## 2. 어렵게 출제된 민법시험의 특징

문제 유형	제28회	제29회	제30회	제31회
사례 문제	7문제	14문제	12문제	15문제
긍정형 문제 (옳은 것은?)	9문제	19문제	11문제	18문제

## 3. 31회 민법시험의 특징

(1) 새로운 문제 유형 - 문제 유형의 변화

기본의 문제 유형과 전혀 다른 문제 유형이 많이 출제되어 문제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음 →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해결

(2) 종합형 문제의 증가 → BOX 문제가 9문제 출제 됨

특정 논점에 해당된 사항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논점을 종합해서 묻는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 문제 유형이 새로운 것일 뿐으로 적응하면 오히려 쉽게 풀 수 있음 →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해결

## 4. 2021년 제 32회 민법시험 대비

### (1)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

- 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사례문제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매년 10문제 이상 출제 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 문제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됨.
- ② 의외로 사례문제를 포기하거나 사례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
- ③ 사실 사례문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나 등장인물 등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단지 지문 내용만 조금씩 변화가 있을 뿐이므로 유형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음.

→ 기출 1000제를 통해서 출제 가능한 사례문제 유형을 계속 반복 연습

### (2)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비

- ① 어떠한 문제집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민법 문제보다는 국어문제인 경우도 많아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②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대책은 역시 문제에 있음. 또한 가장 좋은 문제는 역시 기출문제이나, 우리 기출문제에 답으로 출제된 것으로 10년 이내에는 다시 답으로 출제되지는 않음.
- ③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통한 연습이 필요함.

→ 기출 1000제 (3월 초 예정, 테마80개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와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1000제로 편집함)

### (3) 종합형 문제에 대한 대비

- ① 특정한 논점(테마)에 관한 사항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넓게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특히 BOX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잘 되고 있음.
- ② 종합형 문제도 앞의 사례문제나 긍정형 문제처럼 생소함으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사실 그 논점의 대표적인 사항을 주로 묻기 때문에 오히려 기출문제 지문만 잘 정리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임.
- ③ 먼저 개별 논점에 대한 지문이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이 요구됨.

→ 정답이 방긋 웃는 민법지문으로 해결